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¹⁾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사회가 보이는 병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실주의에 대하여 문화 심리적 뿌리를 상징하고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를 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나는 규범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과 사의 영역 모두에서 '화목'과 '위계의 수용' 관련 규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의 확대부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2에서는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사의 관심이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상황(인정행위 또는 공정행위가 취해짐) 세 가지를 각본으로 제시하고, 각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아 분석하였다. 사람들은 갈등상황에서 공정행위를 모범적인 답으로 여기고 있으나, 인정행위도 중요한 답론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는 대학생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인정행위에 대하여 더욱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며, 인정과 공정의 답론이 인간사고의 두 가지 특징을 반영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해방이후에 사회의 경제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정치와 생활의 현장에서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 있고 있는 사회문제들의 뿌리에는 정실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

적하고 있다. 정실주의, 사사(私事)주의, 혹은 연고주의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화의 시대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1)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육성과제(KRF-96-002-C0236 C500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 연구자는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대구대학교의 전점구, 이종한 교수께, 그리고 자료의 분류, 정리, 통계처리 및 표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양관승, 김경자, 이재상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초고를 보고 많은 도움을 주신 조궁호, 김완석 교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문의는 전자우편(ghan@chonnam.ac.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의 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정실주의 및 이와 관련된 부패의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송하율, 1999)²⁾.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정실주의의 병폐로써, 인사불공정, 지역감정의 문제는 물론,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들고 있다(임희섭, 1980). 정실주의는 많은 경우에서 공사의 갈등이라는 심리 사회적 현상과 물려있다. 흔히들 한국인들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한다. 즉 공과 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공보다는 사를 우선시하는 행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실주의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공적인 영역에도 확산되어 나타나므로써 심각성을 지니게 된다. 비록 정실주의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설명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의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정실주의를 보이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한국사회가 지닌 독특한 인간관계 문화가 정실주의의 만연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정(人情)과 대인신뢰를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특성이 종종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사회정의의 규범과 상충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이 경우에 공의 논리(公正)보다 사의 논리(人情)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정실주의가 많은 사회문제의 그루터기에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공과 사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사의 영역

인간이 지닌 대표적인 특징으로 사회성을 든다.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맺음에 의해 성립하는 상태이다. 누구나 관계맺음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양태의 관계를 맺어간다. 이들 관계맺음

을 성격상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私)의 영역: 사의 영역에서 인간관계란 성원들이 친분을 도모하며 정을 쌓아가는 관계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적관계는 가족관계이다. 가족의 성원들은 한 울타리 안에서 공존한다. 이들의 관계맺음도 역할을 떠날 수 없지만, 공적인 역할관계보다는 사적인 정(情)의 관계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김주희, 1992; 최상진·한규석, 1998a). 즉 성원들이 가족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지니고 있지만 이 역할은 자연발생적이며, 동거하는 과정에서 정을 쌓아 가는 것이다.

정의 핵심적인 속성은 아껴주는 마음이다(최상진·유승엽, 1995). 정의 교류에서 사람들은 우리성 심리(최상진·박수현, 1990)를 공고히 하며, 자발적으로 상대를 돌보며, 상대의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心情)을 헤아리는 심정소통적 행위를 보이며(김경자·한규석, 2000), 궁극적으로 ‘내 것 내 것’의 구별이 없어지는 사이를 지향한다. 따라서 서로의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언행은 꺼려지게 된다.

정이라는 아교로 밀착되는 사적인 대인관계에서 교류를 지배하는 규범은 신의(信義)라고 볼 수 있다³⁾. 이 관계에서의 신의는 무한책임의 것이다. 즉 상대방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이며, 다함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이승환, 1998). 이같이 신의를 무한책임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도(道)이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품성이라고 여기는 유학의 가르침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탓에 무한책임으로서의 신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유형의 관계맺음 중에서 친구지간이나 가족 성원간의 관계맺음에만 제한적으로

2) 1999년 보고된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99개국 가운데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함께 50위(3.8)를 차지했다. 1998년에는 85개국 중 43위였다. 이런 순위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7위)나 홍콩(15위), 일본(25위)은 물론이고 대만(28위), 말레이시아(32위), 몽골(43위)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이다.

(<http://transparency.or.kr/cpi/bpi99.htm>)

3) 한 논평자는 유교에서 信義는 君臣有義, 朋友有信에서 처럼 특정의 관계에서 관계맺는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같은 논의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신의를 무한책임의 신의와 유한책임의 신의로 구분하여 전자는 부자, 부부과 같은 자연적 관계에서, 후자는 계약적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되, 신의를 일반적인 관계맺음의 보편적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

작용하는 규범이다. 이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약적 관계에서의 신의와는 다르다.

공(公)의 영역: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간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내집단 밖의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잦아지고, 정에 의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구별되게 된다. 즉, 단순히 친해지려는 관계가 아니라, 목적을 지니고 이루어지는 역할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들이 공의 영역을 구성하며, 이들 관계에서 사람들은 특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자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의 관계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해의 교환관계이며, 사리(事理)에 바탕한 대화가 소통의 수단이 된다(최상진, 1997; 최상진·김기범, 1999; 최상진·한규석 1998a). 사리(事理: facts-based)적 대화란 일상에서 서로간의 견해(사실적이거나 가상적인)를 바탕으로 형식논리(formal logic)의 추론 과정에 의지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양상이다. 이 대화에서는 쌍방간의 관계가 지닌 특수성(정의 깊이, 신분의 차이 등) 보다는 주고받는 말의 통사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화내용이 지닌 객관적 사실성과 논리의 타당성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도구가 된다. 이는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류상황에서 불가피하며, 의사소통의 최소한의 규범이기도 하다.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갖고 공의 영역에서 교류하는 이들에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의사소통에서는 드러난 표현으로, 사회생활에서는 공정성을 지닌 법과 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정과 달리 법은 해서는 안될 것을 규정하는 최소규범적 성격을 지닌다(이승환, 1998).

공사의 갈등과 문화: 최소규범으로서의 공정과 최대규범으로서의 인정은 많은 사회현실 상황에서 상충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승환, 1998 5장 참조).

동양사회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통체(統體)-부분자(部分子)의 관계로 규정하였기에(최봉영, 1998),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화합과 질서의 도모가 관심거리이었으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와 도리(道理)가,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지가 관심거리이었다. 유학사상에서 인간은 추상적이고 개별자적 존재가 아니라 오직 다양한 관계맺음에서만 존재하는 구체적인 관계자이다. 관계공동체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는 개별적 행위는 지탄을 받는 윤리가 자리잡게 되었다⁴⁾. 유학의 관계중심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오륜(五倫)은 각 인간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한마디 의(義)로 축약될 수 있다⁵⁾(이승환, 1998, pp.142-149). 의의 덕목은 무한 책임적이다. 즉 의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절의를 지키기 위해서 충신들은 목숨을 버리고, 아낙네는 강물에 투신을 하였다.

유가사상이 강한 사회에서 법은 예(禮)의 하위개념이었으며, 예는 다시 정의(正義)의 하위개념이었다. 당나라에서는 재판의 기준으로서 우선 법전에 의거하고, 법전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예에 의거하고, 그래도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⁶⁾고 한다(이승환, 1998, pp. 15). 유가사상은 본질적으로 자연법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실정법의 권위를 자연스러운 도덕적 바탕에 두는 것이다. 인간행위의 최종 판단을 법이 아니라 도덕에 둔 자연법 사상은 동양의 법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은 판단의 궁극적인 준거가 아니었으며, 군주는 법치가 아닌 덕치를 행하고자 하였다⁶⁾.

4)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함에 있어서, 군자는 공동체의 선(義)을 추구하는 반면에, 소인은 사리를 탐한다고 하고 있는데(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논어, 이인 편), 이는 공동체 윤리의 대표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박이문, 1998).

5) 이승환은 의, 절의, 신의, 지조, 절개, 명분 등이 모두 구체적이고 특수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덕목으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를 '義'群 덕목으로 묶어 추상적인 덕목인 정의와 비교하여 논하고 있다.

6) 이를 반영하는 좋은 예가 소개되어 있다: 공자가 노나라의 제판관으로 있을 때 세 번을 탈영한 병사를 심문하였다. 이때 병사는 만약 자기가 전사하면 늙은 부친을

동양의 유학사상에 비해서, 서양의 정의(正義)론 철학자들이 문제삼는 것은 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자적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재화의 배분을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합체(合體)-개별자(個別子)의 관계로서 규정하였기에(최봉영, 1998), 이들 개별자(atomistic self)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에게 불만족스럽더라도 최소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규범에 관심을 지녔고 이것이 공정, 정의(justice)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공정의 사상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준을 밝히는 것이므로, 보편성을 전제로 한다. 이들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자아관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자아이다. 개인의 자아에 대한 신장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의론의 입장에서 '의무'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이다(이승환, 1998, pp. 148-9). 따라서 타인에게 합당한 몫 이상의 자비를 베풀거나 온정을 주는 것은 의무의 사항이 아니라 권리와 선택(시혜)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하였던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유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파악하였다. 모든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정신으로 제시된 것은 인(仁)의 정신이다. 이 인의 정신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심성이며(박이문, 1998), 우리성을 친계가족에서 방계가족,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확대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한다. 심지어 우발적인 관계에서도 아류(亞流)적인 우리성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는 인을 바탕으로 한 인정(人情)이 누구에게나 베풀어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관계에 의한 교류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최대규범적 인정의 작용관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공평성의 문제가 부상하였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빈번히 전개되었다. 공사의 갈등 문제는 결국 공정과 인정, 법리와 정리,

법과 인이라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규범들의 갈등이다. 이 문제가 특히 한국사회를 포함한 유교문화사회에서 심각한 것은 대인관계의 근본을 인(仁)의 관계로 보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공사갈등의 심리학적 연구

공사의 갈등문제가 보편적이며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심리학에서 이 문제는 주로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는 Kohlberg (1982)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의 도덕성 발달의 문제로 이를 다루었으며, 도덕성의 발달은 인간관계의 중시를 극복하여, 보편적인 윤리의 내면화로 진행되는 단일선상의 발달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공사가 갈등하는 경우에 공이 우선해야 한다는 절대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Kohlberg(1981)에 따르면 정의심(justice)과 자비심(benevolence)의 두 가지 도덕률이 갈등을 하는 경우에 정의를 우선적으로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공적인 것인 반면, 자비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공선사후의 원칙이 지켜져야 사회의 기강이 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상은 서구의 정의론 철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미국의 아동들에게 정의와 자비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 도덕률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의를 드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Smetana, Bridgeman, & Turiel, 1983). 또한 미국의 성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성질이 아니며 개인적인 의사에 달린 것으로 여겼으므로(Higgins, Power, & Kohlberg, 1984) 미국인들은 정의에 대한 책무를 자비에 우선시키며, 자비를 보편적 도덕률로써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여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에 관심이 급증한 문화라는 변수와 결합하면서 흥미 있는 발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심리학자(Miller & Bersoff, 1992; Shweder & Much, 1991)들은 각기 문화권에 따라서 최상의 도덕률은 다를 수 있다는 상대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와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친구와의 우정과 정의가 갈등하는 상황을 제시하고서 어떤 반응이 나

봉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탈영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공자는 그 병사를 탈영죄로 처벌하는 대신에 오히려 포상을 하였다(이승환, 1998, p. 17-8).

오는지를 조사한 연구(Miller & Bersoff, 1992)는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우정을 선택하고 미국인들은 정의를 선택하는 것을 보였다. 더욱이 인도인이건 미국인이건 각각 자신의 선택이 더 도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Shweder, Mahapatra, & Miller, 1987)는 친구나 친척의 기대를 어기는 행위를 인도인들은 도덕의 문제로 보는 반면에 미국인들은 이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보여주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지배적인 도덕률이 인정이며 이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시적), 가족적인 만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지배적인 도덕률이 정의이며 이는 개인이 다른 개인을 이해관계의 바탕에서 만나는 공적인 만남의 관계를 지배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사갈등의 문제를 서구의 사회심리학자들은 분배 정의와 절차정의의 문제로 구체화하여 다루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배의 규범과 절차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교류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형평분배, 균등분배, 필요에 의한 분배 등이 합목적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많은 연구로 이어졌다(Sampson, 1975; 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8 등).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수용되는 규범과 절차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두었을 뿐이며, 사람들이 상황에 처하여 갖게 되는 다양한 관심의 갈등내용을 조명하지는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 공사의 갈등 문제를 접근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개인의 특성, 태도, 조망(이수원·이현남, 1993; 장성수·이수원·정진곤, 1990 등)의 성격론적 입장을 취했으며, 최근에 사회정체감 이론(Tajfel, 1978)을 적용하는 상황론적인 입장을 취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한 연구(이수원·이현남, 1993에서 재인용)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게는 공적인 집단 정체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실험처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위반을 하는 것을 목격한' 상황을 제시하고 딱지를 떼는 행위

(공정의 책무)와 이를 묵인한 행위(인정의 책무)가 각각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 등을 물어 보았다. 실험 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인정의 책무보다 공정의 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체감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우에는 인정에 끌리는 행위가, 그 정체감이 공적인 것이라면 공정에 끌리는 행위가 나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은 공정행위와 인정행위가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하여 알려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공사 각 영역에서 행위에 대한 사회의 표상,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사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그러한 사회적 인식의 작용논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공의 영역에서 정실주의가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 현상에 대하여 경험적 근거에 바탕한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그 사회의 문화 사회적 현상을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문화심리학적 접근(김정운·한성열, 1998; 최상진·한규석, 1998b; Shweder, 1991)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보편성의 심리학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Miller, 1999).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초등학교의 초급학년용 도덕교과서를 택하여, 나타나고 있는 규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관심은 공과 사의 영역에서 어떠한 규범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있다. 연구 2에서는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본으로 제시된 공사의 갈등상황에서 취해진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공사갈등 상황의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작용하는 요인과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1

아동은 출생이후 사회화과정에서 그 사회의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익히게 된다. 부모형제와의 교류과

정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과 권장되는 것,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익히게 된다. 가정에서 아동이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은 거의가 사적인 관계이지만, 그 사회의 공적인 규범에 대하여도 배운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에 다니면서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대한 다양한 규범은 도덕교육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 전수된다. 연구 1에서는 초등학교의 초급학년에서 공과 사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절차

교육부가 1995년에 간행한 초등학교 1, 2학년용 도덕교과서인 ‘바른 생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물론 도덕교육은 상급학년으로 진학하면서 계속 이루어지지만, 1, 2학년용 교과서는 내용이 단순하고, 표방하는 규범의 내용들이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이 명백히 기술되고 있어서, 분석을 이에 국한시켰다.

교과서(1학년용과 2학년용 각 학기의 것 4권)의 본문에 나와있는 모든 문장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행위들, 사회적 규범들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 항목은 문장이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들이었으며, 중문의 경우에는 2-3개의 단문으로 변환하여 규범항목을 만들었다. 같은 규범이 동일교과서에서 2번 이상 나오면 한번 나온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다른 교과서에서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들은 다섯 개도 못되었다. 규범의 도출 작업은 연구목적에 설명받지 않은 조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도출된 규범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결 과

교과서 4권에서 도출되어진 규범항목들은 모두 280개가 되었다. 이들을 내용이 비슷한 것끼리 묶고, 범주화작업을 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개인적 생활의 규범, 대인관계의 규범, 공동생

표 1. 교과서의 개인적 생활 관련 규범

범주	소범주	1학년		2학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정리정돈		7	5	2	3	17
건강 및 안전		10	6	9	1	26
삶의 자세	스스로	0	5	2	5	12
	노력	0	0	0	8	8
규칙적인 생활		1	8	2	0	11
언어생활		1	0	7	0	8
식사예의		0	8	0	0	8
절약		0	4	0	10	14
합계		19	36	22	27	104

활의 규범의 세 범주이다.

개인적 생활범주에는 정리정돈, 건강 및 안전(바른 자세, 개인위생, 건강, 안전), 삶의 자세(열심히 노력하는, 스스로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 언어생활(바른 말, 고운 말), 절약(아껴쓰기, 저축하기) 등과 관련된 규범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규범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삶의 자세로서 진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점,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점들이다. 한마디로 노력(誠)하고, 절제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수기(修己)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다(표 1).

대인관계의 범주에는 아동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가족, 이웃, 친구, 웃어른, 선생님 등)과 지켜야 할 규범들, 방문예절, 그리고 인사예절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윗사람(부모, 어른, 선생님)에 대하여는 순종, 공경, 인사 등의 위계를 수용하는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 마치 윗사람과 마찰이 생길 소지는 전혀 없으며, 윗사람의 권위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사이에는 화목, 상부상조, 협력의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서의 해결은 양보, 수용의 형태를 권장하고 있다.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는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규범(예를 들어, ‘울고 그림을 따진다’ 따위)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범주의 가장 큰 특징은 화목의 도모와 위계질서의 수용이라고 보겠다(표 2).

공동생활 범주에는 공동생활의 자세, 공공시설물 이용, 자연보호, 나라사랑과 관련된 규범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공동생활의 자세 범주에는 질서, 화목, 상부상조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규범들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희생을 권면하는 내용의 것들이다. 그러나 공적생활의 목표나 대의를 추구하는 규범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표 3).

표 2. 교과서의 대인관계 관련규범

범주	소범주	1학년		2학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가족	부모효도	2	0	4	2	8
	가족일반	0	1	4	2	7
	형제화목	2	0	1	1	4
이웃	화목	0	2	1	5	8
	도움	0	0	4	5	9
	예의	0	1	3	0	4
친구관계	화목	1	2	3	2	8
	도움	0	1	4	2	7
	예의	0	1	3	0	4
웃어른	태도/자세	0	2	4	1	7
예절	언어	0	1	3	0	4
	학교	1	3	2	5	11
	바른 인사	3	1	4	0	8
	합계	9	15	43	25	92

- 7) 교과서에 나타나는 이와 관련된 규범들은: 내가 먼저 친구에게 양보한다(1-2), 친구와 싸웠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한다(1-2), 자기물건을 친구에게 자랑하지 않는다(2-2), 친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정한 말로 이야기해준다(1-2), 친구의 잘못을 용서한다(1-2). (괄호 안의 숫자는 학년-학기 표시임)

표 3. 교과서의 공동생활 관련 규범

범주	소범주	1학년		2학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공동생활 자세	질서	4	0	9	2	15
	예의	0	0	11	2	13
	노력	0	1	0	3	4
	상부상조	0	1	2	1	4
	화목	0	0	3	1	4
	배려	1	0	0	0	1
공공시설 이용		11	1	9	0	21
자연보호		0	6	2	6	14
나라사랑		2	3	1	2	8
합계		18	12	37	17	84

논의(연구 1)

공사의 구분: 초등학교 저학년의 도덕교과서 <바른 생활>의 내용을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사적 대인관계의 영역(가족, 친구)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화목과 권위의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공적인 영역(학교생활, 이웃과의 생활)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질서, 상부상조, 화목과 관련된 규범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들 규범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생활에서 마찰과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규범들로서, 학교생활을 확대된 가족생활로 제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학교생활(공적 영역)의 대의(大義)나 목표, 또는 자기실현을 위한 장으로써 학교생활을 고려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 있는 것은 공의 생활과 사의 생활에 대한 자세를 구분하는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소제목의 배열을 보면, 『반가운 인사. 길조심. 바른 몸가짐. 정리 정돈. 화목한 우리가족. 깨끗한 우리 교실. 즐거운 학교, 우리가 함께 쓰는 것, 여럿이 모이는 곳, 나라 사랑』의 10장으로 되어 있다. 이중 첫 여섯 장은 각 제목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7장의 ‘즐거운 학

교' 장은 본문을 "학교 생활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는 다릅니다"로 시작하고 있다(p. 67). 즉 가정 안의
생활을 사의 영역으로, 학교생활을 공의 영역으로 나
누어, 교과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확연히 차이나는
행동을 당연시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
문⁸⁾에서는 가정생활의 규범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5장 「화목한 우리가
족」에서 나오는 내용⁹⁾에 '시간을 지킨다'와 '차례를
지킨다'는 규범이 더해진 것뿐이다. 가정에서건 학교
에서건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어른을 공경하는 규범
이 기술되고 있다.

이같이 실제 기술된 내용에서 나타나는 규범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두 영역에서의 행위지침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온전히
사의 영역으로 제시하여, 응석이나 자기 멋대로 하
는 행위가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학교
생활이라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부가적으로 지켜져야 될 뿐으로 학생
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 즉, 공적영역(여기서는
학교생활)에서 부가되는 공공의 질서, 집단의 화목,
이를 위한 조신(操身)스러운 행위의 규범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욕구를 억누르는 족쇄로 여겨질 소지
가 있다. 이는 특히 공적영역의 대의(大義)가 부각되
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공과 사가 갈등을 일
으키거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보다는 사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실주의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
지는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갈등의 해소: 아동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양
한 활동에서 심적 갈등과 대인갈등을 경험하고 고민
한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도덕교과서는 무엇을 제시
하는가? 적어도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들은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생활자세를 갖도록 권면할 뿐
이다¹⁰⁾. 그러나 갈등이 불거져 나왔을 때 행동지침으
로 제시되는 것은 양보("내가 먼저 친구에게 양보합
니다"-1학년 2학기)와 사과("친구와 싸웠을 때에는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1학년 2학기)뿐이다. 필요하
지만 갈등과정에서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행
위(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
는 행위 등)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 대인갈등 뿐만 아니라 공사가 교
차하는 대부분의 사회상황에서 갈등의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
동에게 마치 공과 사의 영역이 전혀 교차하지 않는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 양자의 갈등문
제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
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초급학년에는 나타나지 않는
공사의 갈등문제가 3학년 1학기에 정직의 덕목과 관
련해서 제시되고 있다¹¹⁾. 이같이 갈등의 제시가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동들의 인지능력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
하고(empathic concern),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어린 나이에 가능함이 나타나고 있다(Hoffman,
1987). 특히 아동들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
기(narrative)를 구성하고, 이야기에 반응을 보인다. 이
야기를 구성해내는 경향은 매우 강력하며(Bruner,
1990), 이야기로 파악되지 않는 사태는 별 의미가 없
어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야기로 파악되는

8)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
다. 시간을 지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차례
를 지킵니다.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언니들의 말에 따릅니다."(pp. 67-72)

9)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냅니다. 항상 고운 말을 씁니다.
기쁜 일은 축하해 줍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습
니다. 부모님을 도와 드립니다."(pp. 46-50)

10) 어느 영역에서나 중요한 삶의 자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화목("사이좋게 지낸다")과 상부상조("어려운 일은
돕는다")이고, 많은 규범들이 이 두 가지 덕목을 지향하
고 있다. 화목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규범으
로서는 "자기 물건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2학
년 2학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이웃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다"(2학년 2학기), "친구 집에 가서는 예
절을 지킨다"(2학년 1학기) 등을 볼 수 있다.

11) 갈등은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본 선생님이 누가 깨었는
냐를 물었을 때 누가 켜는지 알지만 차마 그를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학생의 내용임.

것은 의미를 지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Sarbin, 1986). 사람들이 실제의 생활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경험의 객관적 사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구성해 낸 이야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소설에 의해 감동을 받는 것은 소설이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독자의 경험과 결부되어 나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지니고 있는 이야기와 공명을 이룰 때이다.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들에서만 아니라 교재나 연속극을 통해 제시되는 대인갈등의 상황도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교과서에서 이 같은 내용은 보다 일찍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이 주제와 관련되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공사의 갈등이 처리되는 규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2

인(仁)사상을 바탕으로 공의 영역도 사의 영역이 확대된 영역으로 여기는 유학사상이 덕치(德治)를 이상으로 삼는 것에 대응해서, 인간의 탐욕성을 경계하여, 법치를 주장하는 법가(法家) 사상도 국가제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성과 변화성 때문이다. 즉 현상은 다양한 면모와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perspective)을 지니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각기 타당한 논리가 다르게 된다. 이들 논리들은 담론(discourse)을 형성하고, 형성된 담론은 사회생활의 장면에서 판단과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연구 2에서는 공과 사가 갈등을 이루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의 영역에 부합하는 규범적인 행위(공정 지향행위)를 한 경우와 사의 영역에 부합하는 행위(인정 지향행위)를 한 경우에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의 이유가 되는 논지(담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절차

응답자: 광주와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남녀의 비율이 고루 섞이도록 남녀공학교를 선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수업시간에 담당 교사(혹은 교수)에 의해 시행되었다. 모든 응답자는 581명이었으며, 응답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여, 525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중학생 244명, 대학생 281명이며, 남자 249명, 여자 276명이며, 대구에서 256명, 광주에서 269명이었다. 응답자들의 구성은 각 범주별로 교차하여 반반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절차: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무작위적으로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응답에는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사는 1999년 2월과 3월에 행하였다.

질문지: 공과사의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일상의 사건각본 세 가지로 구성된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만들었다. 한 유형에서는 각 사건각본에서 행위자가 인정행위를 취하였으며, 다른 유형에서는 공정행위를 취한 것으로 꾸몄다. 인정행위를 한 상황각본 1(교통위반: 이수원, 1993 참고)은 다음과 같다: “박경사는 교통정리 임무를 수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승용차를 적발하였다. 운전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봐 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운전자의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 박경사는 딱지를 발부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며 보냈다.” 공정행위를 한 상황각본의 경우에 밑줄 친 부분은 “들었으나 박경사는 법규에 따라 위반 딱지를 발부하였다”로 대체되어 제시되었다. 각본 2(환경오염)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시정건의한 회사간부가 환경단체의 조사에 처한 상황이며, 각본 3(상사비리)은 회사간부가 자신을 여러 번 도와준 상사가 공금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감사반의 조사협조 의뢰를 받은 상황이다. 각 상황에서 주인공(교통경찰, 회사간부)은 공적정의를 지향하는 행동을 취하거나(즉, 위반딱지를 발부하거나, 환경단체의 조사에 협조하거나, 감사반의 조사에 협조함), 또는 인정 지향 행동을 취한 것으로 제시되었다(즉, 위반자를 그냥 보내거나,

회사의 오염물질 배출을 은폐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함). 응답문항의 유형은 어느 설문지나 같았으며, 내용은 취해진 행위의 잘못, 행위자의 기분, 행위에 대한 이유,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 가장 경우에 바른 행동, 그 행위를 취할 일반 사람들의 비율, 행위자의 친구로써 줄 조언 등을 개방형으로 물었다. 각 상황의 말미에 행위자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도록 9개 항목¹²⁾의 양분형용사 척도를 7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두 가지 설문지 유형별로, 제시된 세 가지 상황에서 공정행위와 인정행위에 대한 응답자들의 개방형 응답을 범주화하여, 빈도를 파악하였으며, 응답빈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연령, 성차, 지역차이의 유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진술한 각 판단에 대한 이유를 내용 분석하였다.

결 과

1. 공정행위에 대한 평가

응답자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공정 지향행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4), 이 경향성은 상황 1과 상황 2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90% 정도). '자신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응답에서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 지향행위를 하리라고 응답하였지만, 그 응답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람들(10-30%)이 인정 지향행위를 하리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황 3의 경우에 인정 지향행위(상사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가 더욱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32%). 이는 공정 지향행위(상사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가 상사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 보인다.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응답자들은 공정행위를 한 당사자

들이 대부분 심적 부담을 느끼리라 여기지만, 상황 2의 경우에는 보람을 느끼리라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36%). 응답자들은 거리의 일반사람들이 각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공정 지향행위를 취하는 사람들이 50%가 안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각본의 행위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상황 1)에는 그나마 공정 지향행위자가 반정도(48%) 나타나리라 보았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상황 2 & 3)에서는 공정 지향행위보다 인정 지향행위가 더 잘 나타나리라 보았다.

집단차이: 응답자의 속성(연령, 성,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상황별 응답내용의 빈도를 구하여 주요 범주로 구분한 후 각 속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보면,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상황 2에서 공정행위를 하겠다는 비율이 적게 나왔고(55% 대 75% ; $\chi^2(3, N = 258) = 13.59, p < .01$),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상황 1과 상황 2에서 당사자가 보람을 느끼리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상황 1: 22% 대 16% , $\chi^2(3, N = 261) = 11.30, p < .01$; 상황 2: 45% 대 29% , $\chi^2(2, N = 260) = 11.1, p < .01$). 이 같은 경향은 상황 3에서도 약하게 나타났다(10% 대 3% , $\chi^2(3, N = 260) = 7.32, p < .06$). 성차가 나타난 것은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을 접한(상황 1) 응답자들에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옳은 행위를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79% 대 88% ; $\chi^2(3, N = 250) = 10.21, p < .05$).

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차이를 정리하면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공정 지향행위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인상평가: 행위자에 대한 인상을 9개 항목(주 12 참조)으로 측정하여, 이들 항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¹³⁾. 이 결과 요인 1은 '믿음직스럽다-믿을 수

12) 믿음직스럽다-믿을 수 없다, 인정 많다-몰인정스럽다, 합리적이다-비합리적이다, 공정하다-불공정하다, 차갑다-따뜻하다, 단호하다-우유부단하다, 호감이 간다-반감이 있다, 의리가 깊다-의리가 없다, 현명하다-어리석다.

13) *전체 자료에서 이 인상평가자료는 6가지이다(두 집단 X 세 상황).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축소할 목적으로, 각 자료에 대하여 주성분요인분석을 행하였고, 요인해석을 위한 회전(varimax)을 하였다. 요인구조행렬에서 각 요인에 부하치가 .30 이상 걸리는 문항들만을 보고, 이들

표 4. 공정행위에 대한 평가

상황	행위 평가	옳은 행위	당사자 라면	당사자 심정	일반인 중 공정행위 자(%)/ SD	인상평가	
	잘한 일/ 잘못한 일	공정/ 인정	공정/ 인정	부담/ 보람		공정성	인정성
						M/SD	M/SD
교통 위반	89/ 9	83 ^{S*} / 8	80/ 13	75/ 14 ^{A*S}	47.8/ 23.1	6.05/ .83	3.97 ^{A**S*AS*} / 1.06
환경 오염	91/ 6	82/ 1	64/ 22 ^{A**}	50/ 36 ^{A**}	26.7/ 19.8	5.84/ 1.08	4.40/ 1.14
상사 비리	70/ 24	76/ 7	57/ 32	90/ 6	31.7/ 22.4	5.05 ^{S*} / 1.31	3.33/ 1.24

1. 인상평가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응답자의 비율임
2. 일반인중 공정행위자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3. 첨자 A는 연령차, S는 성차, R은 지역차가 나타났음을 의미함
4. 의미도는 *($p < .05$), **($p < .01$) 수준을 의미함

없다' '합리적이다-비합리적이다' '공정하다-불공정하다' 및 '현명하다-어리석다'의 문항 4개를, 요인 2에는 '인정이 많다-물인정하다' '차갑다-따뜻하다' 와 '의리가 깊다-의리가 없다'의 문항 3개가 묶였다. 전자를 '공정성' 요인으로, 후자를 '인정성' 요인으로 이름지었다. 각 요인점수는 해당 문항의 평가치를 단 순합산¹⁴⁾하여 평균을 취하였다(표 4).

공정행위자에 대한 인상평가는 인정행위자에 대한 평가보다 공정성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F(1, 523) = 1077.24, p < .001$). 상황요인과 행위요인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정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세 상황조건간 아무 차이가 없는데, 공정행위자의 경우에 상사비리조사에 협조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성의 평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46) = 44.14, p < .001$).

상황별 인상평가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상황별 평균치에 성과 학력의 이요인 변량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공정행위를 취한 교통경찰에 대한 인정성 평가에서 성($F(1, 255) = 5.85, p < .05$)과 연령($F(1, 255) = 11.73, p < .01$)의 주 효과¹⁵⁾, 및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1, 255) = 6.22, p < .01$). 이는 대학생의 경우 남녀차이가 없으나, 중학생의 경우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공정행위자를 더 인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향임을 보여준다. 상사비리조사에 협조한 행위자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서 성차가 나타났다($F(1, 257) = 4.19, p < .05$).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리조사에 협조한 행위자를 더 공정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다(5.22 대 4.90).

문항이 6개의 요인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상을 고려하여 요인을 구성하였다. 6개의 요인분석 결과, 3개 이상의 분석에서 일관되게 부하치가 높게 걸리는 문항들로 요인을 묶은 결과 논문에 나타난 두 개의 요인이 나왔다.

- 14) '차갑다-따뜻하다'의 문항의 경우는 역부호화를 하였다.

- 15) 성의 주효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인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향(4.11 대 3.84)이며, 연령의 주효과는 대학생들이 중학생보다 더 인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4.17 대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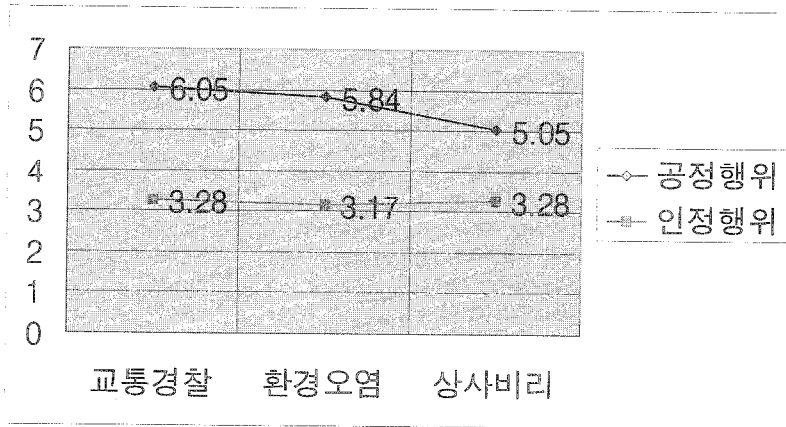


그림 1. 공정성 요인에서의 상황별 인상평가

행위의 이유분석: 응답자들에게 세 가지 상황 각기에서 취해진 행위에 대한 이유와 행위자가 그 행위로 고민할 때 어떠한 조언을 해줄 것인가를 개방형으로 물어 이 응답을 분석하였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한가지의 이유를 대었으며, 복수의 이유를 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응답으로 간주하여 응답들을 비슷한 유형끼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는 각 상황별로 이루어졌다. 이는 각 상황에서 나오는 이유들이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범주화는 연구 목적을 설명받지 못한 조교가 일차적으로 행하였으며 연구자와 응답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제시된 세 가지 상황에서 공정행위를 취한 이유는 각 상황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교통위반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95%, 253개)이 공익, 준법, 직무수행, 공사의 구분에 관한 것들이었다. 환경오염상황에서는 85%(223개)의 응답이 환경, 정의, 공익, 준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상사비리상황에서는 71%(185개)의 응답이 정의구현, 준법, 양심, 대의(大義)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은 공정 지향행위에 대하여 이처럼 공의 규범을 들어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그 양상은 갈등이 어려워질수록¹⁶⁾ 달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공정행위자가 자신의 친구로서 조언을 구한다면 어떠한 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교통위반자를 적발한 상황에서는 대부분(90%, 229개)이 잘한 일이라고 격려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6%(16개)의 응답만이 ‘다음에는 봐주라’라는 응답을 하였다. 환경오염상황에서는 74%(192개)의 응답이 격려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16%(42개)의 응답들이 잘못 처신하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상사비리상황에서는 50%(128개)의 응답이 격려, 31%(79개)의 응답이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2. 인정행위에 대한 평가

인정행위에 대하여 세 상황 모두에서 72% 이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 응답하여 사람들이 공정 지향행위를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그러나, 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에서와는 달리, 교통위반을 봐준 행위에 대한 허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25%). 당사자의 입장에서 취할 행위에 대한 응답에서는 공정 지향행위를 보이

을 들었다. 조건별로 보면, 공정행위자를 평가한 67%의 사람들이 상사비리의 상황을 들었고, 16%가 환경오염, 11%가 교통위반상황을 들었다. 한편 인정행위자를 평가한 사람들의 경우에 42%가 상사비리, 37%가 환경오염, 16%가 교통위반을 들었다.

16) 제시된 세 가지 갈등 중 가장 난처한 상황을 들라는 물음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가, 상사비리 상황을, 27%가 환경오염 상황을, 그리고 13%가 교통위반 상황

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 경향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깊은 경우에 더 강하였다.

응답자들은 거리의 일반사람들이 각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인정 지향행위를 취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과 운전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상황 1)에는 그나마 인정 지향행위자가 반정도(48%) 나타나리라 보았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상황 2 & 3)에서는 인정 지향행위가 68%, 64%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집단차이: 지역, 성, 연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차가 나타난 것은 상황 1에서 인정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대한 판단에서이다($\chi^2(3, N = 260) = 13.60, p < .01$). 여자들은 남자보다 인정행위자가 부담을 느끼리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76% 대 56%). 이와 유사한 양태가 상황 2에서도 나타났으나 통계적 의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p < .10$).

연령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보면, 상황 1(봐준 경찰)에서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당사자가 보람을 느끼리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상황 1: 22% 대 16%, χ^2

(3, $N = 260$) = 11.30, $p < .01$). 상황 2(공해물질배출은폐)에서 은폐행위에 대한 잘못됨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중학생들이 대학생보다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였다(88% 대 77%, $\chi^2(3, N = 263) = 14.41, p < .01$). 이 경향은 자신이 이 과장이라면 보다 많은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은폐하지 않겠다는 응답에서도 확인되고 있다(61% 대 41%, $\chi^2(3, N = 258) = 10.01, p < .05$).

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던 지역차가 인정행위에 대한 평가에서는 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상황 2에서 공해물질배출을 은폐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반응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대구보다 광주에서 높게 나타났다(76% 대 87%, $\chi^2(3, N = 260) = 8.40, p < .05$). 유사한 경향이 위반자를 그냥 보낸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즉 그냥 보낸 행위는 잘못 된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 77% 대구 67%로 나타났다($\chi^2(3, N = 262) = 7.23, p < .10$).

일반인들의 몇%가 인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물음에 대한 응답치에 변량분석(성 X 연령)을 적용한 결과, 연령차이가 세 상황 모두에서 나타났다. 중학생

표 5. 인정 행위에 대한 평가

상황	행위 평가	옳은 행위	당사자 라면	당사자 심정	일반인 중 인정행위 자(%)/ SD	인상평가	
	잘한 일/ 잘못한 일	공정/ 인정	공정/ 인정	부담/ 보람		공정성	인정성
						M/SD	M/SD
교통 위반	25/ 72	70/ 11	63/ 28	68 ^{A**S**} / 20	48.3 ^{A**} / 21.9	3.28 ^{S**} / 1.19	5.41/ .93
환경 오염	11 ^{A**R*} / 82	69/ 2	50 ^{A*} / 32	96/ 1	67.9 ^{A*} / 25.2	3.17 ^{A**} / 1.33	4.01 ^{S**A**} / .92
상사 비리	21/ 73	74/ 8	51/ 42	86/ 3	63.6 ^{A**} / 22.5	3.28/ 1.23	4.40 ^{A**} / 1.51

1. 인상평가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응답자의 비율임.
2. 일반인중 인정행위자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3. 첨자 A는 연령차, S는 성차, R은 지역차가 나타났음을 의미함
4. 의미도는 *($p < .05$), **($p < .01$) 수준을 의미함

들보다 대학생들이 각 상황에서 인정행위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여기고 있음이 나타났다(상황 1: 45% 대 52%, $F(1, 251) = 6.54, p < .01$; 상황 2, 64% 대 71%, $F(1, 256) = 595, p < .05$; 상황 3, 59% 대 67%, $F(1, 254) = 9.44, p < .01$).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황 2의 응답치에서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1, 256) = 6.78, p < .01$). 이는 중학생에서는 여학생들의 추산비율(거리의 인정행위자)이 남학생보다 높으나(70% 대 58%) 대학생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이다.

인상평가: 인정행위자에 대한 인상평가는 공정행위자에 대한 평가보다 인정성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F(1, 512) = 116.42, p < .001$, 표 5). 상황요인과 행위요인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 1과 3에서는 두 유형의 행위자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인정행위를 공정행위보다 인정성 높게 평가함), 상황 2(환경오염)의 경우에 두 유형의 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인정성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환경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여겨진다($F(2, 1024) = 104.04, p < .001$).

운전자를 그냥 보낸 교통경찰에 대한 공정성 평가

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는데($F(1, 260) = 10.79, p < .001$),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행위자를 더 공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다(3.08 대 3.55). 자기회사의 환경오염을 은폐한 행위자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서 연령차이가 나타났는데($F(1, 260) = 16.02, p < .01$), 이는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행위자를 더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2.90 대 3.41). 이 같은 차이는 그 행위자에 대한 인정성 평가에도 나타나($F(1, 260) = 13.79, p < .001$), 그를 중학생보다 대학생이 더 인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3.80 대 4.20). 아울러, 남자가 여자보다 그를 더 인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향도 나타났다(4.13 대 3.93, $F(1, 260) = 4.86, p < .05$). 상사비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에서 연령차이가 나타났다($F(1, 257) = 16.60, p < .001$), 이는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행위자를 더 인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4.76 대 3.98).

행위이유: 제시된 상황에서 인정행위자를 접한 사람들에게 그 행위의 이유를 물어 분석한 결과, 교통위반상황에서는 72%(193개)의 응답이 동정심, 연민, 공감의 유형이었다. 환경오염상황에서는 개인적 곤경(64%, 169개), 회사의 이익(23%, 61개)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상사비리 상황에서는 69%(173개)의 응답이 개인적 신의(신뢰와 배신 등)와 관련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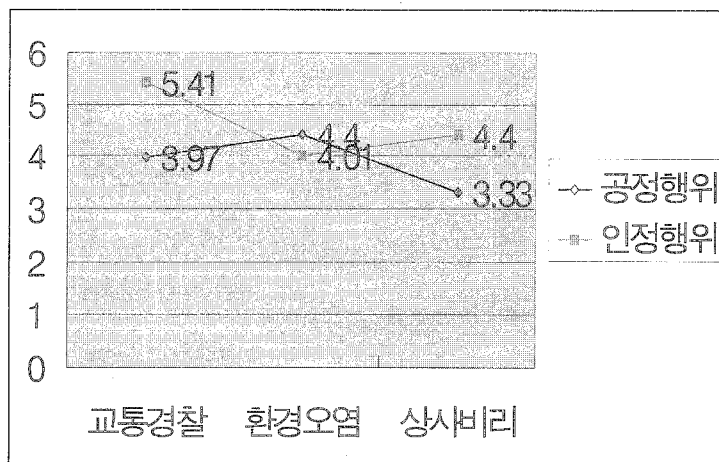


그림 2. 인정성 요인에서 상황별 인상평가

들이었다.

행위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했을 때 줄 조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통위반상황에서는 64%(166개)의 응답이 사회정의, 공사구별 등의 내용이었고, 30%(77개)는 괜찮다는 격려의 내용이었다. 환경오염상황에서는 49%(124개)가 환경보호,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22%(55개)는 격려의 내용이었다. 상사비리상황에서는 52%(137개)의 응답이 공사의 구분, 대의의 내용이었고, 28%(72개)는 인정, 의리, 격려의 내용이었다.

논의(연구 2)

연구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공정 지향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행위자들이 역할로 교류하는 상황 1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교통위반 상황에서처럼 상호(경찰과 운전자) 무관계한 개별자들의 역할교류에는 공정성, 객관성의 논리가 작용함을 보이고 있다. 상사비리 상황의 결과는 상호(자신과 후견인) 관계적인 상황에서 인정의 논리가 작용함을 보이며, 의리와 배신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인다. 환경오염 상황에서 상호(자신과 삼촌회사) 관계적인 '우리'상황의 인정논리가 작용하기 보다는, 공정의 논리가 더 선호된 결과는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담론이 행위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탓으로 여겨진다¹⁷⁾.

공정 지향행위의 바람직성에 대하여는 응답자들간의 집단차이가 거의 없어, 사회갈등의 "정답"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판단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이 제시된 상황에 처한 당사자의 입장에 선다면 공정행위를 취하겠다는 응답이 50%(평균 61%)를 상회하며, 인정행위를 취하겠다는 응답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다(평균 28%). 더욱이

이들이 거리의 일반사람들의 경우에 각기의 상황에서 공정행위보다 인정행위를 취할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 것을 간주한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 지향행위를 취하리라 볼 수 있다.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 현상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면 자신의 행위를 표출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지향 행위를 취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비록 자신은 공정지향 행위를 선호한다고 해도 이를 표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공정지향 행위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는 자주 공론화되어야만 적어도 다원적 무지에 의한 정실주의적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받는다.

특히 상대와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공사의 갈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공정 지향행위를 하건 인정 지향행위를 하건 모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사의 갈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지침이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의 담론이 공사의 갈등에서 중시해야 할 담론으로서 여겨지지만, 인정의 담론 역시 중요한 담론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공정행위를 취한 "친구"에게 주는 조언에서 인정의 담론이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황 3에서처럼 상대와 정의 신뢰관계에서는 상사의 비리조사에 협조하는 행위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31%)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논리적인 판단은 판단이고, 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정이라는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정행위를 취한 "친구"에게 주는 조언에서 그 행위의 수용이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위반 상황에서 "봐준" 행위에 대하여 잘하였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적발행위가 잘했다는 응답이 90%에 가까운 것에 비하면 특기할 만 하다. "봐준"행위의 이유로서 대부분이 측은지심을 들고 있어 비록 상대와 무관한 입장(순수한 역할관계)에서도 인정은 무시될

17) 환경문제가 최근에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조사협조행위에 대한 이유분석에서 37%(96개)의 응답이 환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단일범주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 없는 요소로 여기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1970년대 행해진 조사연구(양승두, 1980)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일일이 법대로 벌을 받게 하는 순경과 웬만한 일은 되도록 보아주려는 순경 중에서 어느 쪽이 훌륭한 순경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7%만이 법대로 집행하는 순경을, 60.5%는 보아주는 순경을 택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판단에서 나타나는 연령의 차이를 보면, 중학생보다 대학생들이 인정행위의 현실성을 더욱 수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거리의 사람들 중 인정행위자의 비율추정에서도 나타나며(대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추정), 인정행위의 잘못됨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중학생들이 대학생에 비해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반대 현상이 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다(즉, 중학생들이 대학생보다 공정행위에 대하여 잘한 일이라고 평가함). 이 같은 연령차이는 중학생들이 대학생보다 더 공정 지향적이며, 개인지향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이므로 이러한 연령차이가 발달적 차이를 의미하는지 세대 차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세대차로서 이를 본다면, 연령이 적은 중학생들이 대학생에 비해서 더욱 공정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성인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한규석·신수진, 1999; 한성열·안창일, 1992). 이러한 결과는 일견 본 연구결과와 모순되지만, 이전 연구들에서는 현재의 중학생과 대학생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는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귀인현상의 미국과 인도의 비교연구(Miller, 1984)에서 아동들에게서 문화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성인들에게서 미국·성향귀인, 인도·상황귀인의 차이를 보여준 결과와, 인지능력의 발달과는 무관하게 성인이 된 인도인에게서 초자연적인 신념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여준 연구(Shweder & Much, 1991)결과

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차이는 사회화과정에서 인정(人情)이라는 문화 코드를 습득하여 가면서 판단준거가 복잡해지는 발달적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해석은 행위에 대한 이유분석에서 중학생들이 대학생보다 단일한 준거(환경 중요, 법 중요 등)를 많이 대는 반면에 대학생들은 복합적인 준거(공익, 책무, 사회정의 등)를 대는 경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도 상응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여자보다 남자가 인정행위에 대하여 관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의 평가가 남자보다 인정행위자에 대하여 더 가혹하며, 공정행위자에 대하여 더 바람직하게 보는 경향이 몇몇 상황에서 나왔다. 이 같은 성차는 성차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괴리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고, 남자가 업무 지향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비추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인정 지향적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원칙지향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비록 강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구지역의 학생들이 광주지역의 학생에 비해서 인정 지향행위에 대하여 보다 수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간 고정관념에서 경상도 지역민을 의리가 강하다고 보는 것(고홍화, 1989 등)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어 흥미롭다. 한편 상사비리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이유 분석에서 대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의리, 배신의 문제를 드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서, 이기적인 이유(관련되기 싫어서, 귀찮아서, 자기모면 등)를 대는 경향은 중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견상 인정 지향행위의 내적 동기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상황의 분석에서 다양한 동기의 작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공과 사의 사회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규범이 무엇이며, 공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지니는 함의를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겠다.

공과 사의 구분: 한국사람들은 공과 사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몇몇 연구(김재은, 1987; 양승두, 1983)들이 실증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즉 공적인 활동영역에서조차(교통경찰의 경우) 사감(私感)이 관여되는 인정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비록, 공정과 인정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공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지만, 인정에 대한 고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2에서 응답자들이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에게서는 인정에 의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정(情)의 관계가 아닌 역할관계에서도 인정의 담론이 적용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현상적으로 한국인의 정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최상진·한규석, 1998a). 그렇다면 한국인에게서 공과 사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공과 사는 사회 활동에서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진다. 흔히 자신과 가정,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영역을 사의 영역으로, 역할과 목표로 맺어지는 교류영역을 공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사의 영역에서는 감정, 느낌, 개인적 동기, 욕구, 욕망에 바탕을 둔 행동과 생각, 그리고 정서의 표현이 인정된다. 한편 공의 영역에서는 일의 도모 및 처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성, 합리성, 논리성, 동기에 바탕을 둔 행동과 생각이 권장된다. 의사소통의 양상에 있어서 사의 영역에서는 심정을 소통하는 대화가 용인되어지며, 공의 영역에서는 사리를 소통하는 대화

가 권장된다(김경자·한규석, 2000; 최상진, 2000). 따라서 사의 영역에서는 인정의 규범이 작동하며, 공의 영역에서는 공정의 규범이 작동한다. 이같이 교류영역에 의한 공사의 구분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구별이 된다. 즉 스스로가 관여가 되지 않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기는 쉽다. 그러나 스스로가 관여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류장면을 공사의 영역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인지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성 관계의 특성(최상진·박수현, 1990; 최상진·한규석, 1998a)이 작용하므로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규범과 동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다.

상대와의 관계를 우리성 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당사자의 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기가 쉽다. 최상진(1997)은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자적 접근이 아니라 당사자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공과 사의 문제도 이를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구식의 제3자적 관점을 부지불식간에 취하고 있는 탓이라 여겨진다. 특히 공사구분의 혼미스러움은 유학의 경전에서 제시되는 여러 사례¹⁸⁾로 인해서 증폭되어진다. 유학의 경전에 나타나는 사례들은 유학의 성립배경과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유학은 기본적으로 가족주의를 확대시켜 대동(大同)사회를 구현하려는 사상이므로(최석만, 1998), 가족에서 통용되는 관계의 규범이 일반사회인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18) 이와 관련된 사례가 유학의 경전에는 여럿 제시되어 있다. 논어에는 어떤 이가 공자에게 자기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친 것을 관아에 고발한 사람을 보고 곧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데, 공자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기는 것이 곧은 것이다"고 답한다(子路 편). 또한 어떤 이가 맹자에게 순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하였을 경우에 순임금은 어찌했을 지를 물은 것에 대하여 맹자는 "제위를 버리고 아버지님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숨어살았으리라"고 하므로서(孟子, 盡心上), 육친의 자연스러운 혈친관계와, 그를 지배하는 자연스러운 성정을 저버리는 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다.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유학사상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대학>의 핵심구절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유학의 성립당시 주나라의 봉건사회에서는 정치집단이 곧 혈연집단이었다는 특징에서 이해될 수 있다(한형조, 2000). 당시에는 자신, 가정, 국가는 연속선상의 것으로 같은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사회생활의 주된 관계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벗어나고, 그 관계의 영향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유학의 관계윤리의 적용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내부자 고발(whistle blowing)의 건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와 부정을 폭로함으로써 보다 큰 사회적 공의(公義)를 도모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배신적 행위로 여겨져 왔다. 가족적 관계를 이상으로 하고 성원들간의 의리와 충성을 높이 사는 우리의 문화풍토속에서 ‘양심선언’, ‘폭로’ 등의 기사로 매체를 장식하는 내부고발적 행위는 고자질로 여겨지고, 그 행위자는 대부분 조직에서 추방되는 처벌을 받는다¹⁹⁾.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지만, 우리의 관계문화가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에서 처럼 인간을 관계속에서 파악하는 경우에 공과 나는 생활영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안에 대한 접근 자세(조망)와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유학에서는 사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늘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점에서 서양의 사(privacy)와는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 私²⁰⁾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것, 나만의 자유로운 관찰이 가능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강하게 있는 것이다. 유학에서는 인간이 행해야 할 道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자

나깨나 늘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했다. 도의 출발을 바로 어버이를 친애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인간행위의 당위적 규범인 인의예지의 핵심을 가족관계에서의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에 바탕한다고 본다²¹⁾(조궁호, 1991). 이러한 바탕을 넓혀서 천하의 관계로 확장시키는 것이 곧 도의 실행인 것이다. 즉 도는 남을 대하는 규범인 동시에, 아울러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다스리는 불변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私²²⁾를 개인과 가정사의 영역으로 두기보다는 자신의 이해와 욕망을 구현하려는 마음으로 보았고, 公은 道로서 사적인 욕망을 유보하고 절제하며 공공의 선과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가려는 마음(한형조, 2000)으로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유학사상은 공과 사를 매우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오히려 이 구분이 지나쳐(즉 사를 극단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사람들로 하여금 공과 사의 구분을 견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다스려 항상 공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정신(公先私後), 몸가짐을 늘 단정히 하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는 신독(慎獨) 사상,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의 인(仁) 사상은 모두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지키기는 어려웠으리라 본다. 연구 1에서 나타난 아동의 생활규범(표 1)은 성(誠)과 절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들은 신독사상의 이동판이라 볼 수 있다.

공과 사를 사회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자세 또는 조망의 문제로 볼 때, 연구 2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이해하기 쉽다. 주어진 상황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보다는 그 상황에서 작용할 수 있는 조망(인정과 공정 등)들 가운데서 선택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19)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은 구속과 파면을 당해야 했고, 재판을 통해서 1996년에야 복직되었다.

20) 영어사전에 나타난 정의는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hidden from, or undisturbed by, the observation or activities of other persons. freedom from undesirable intrusions”(Webster’s Dictionary, 1989)

21) 맹자에서 “仁의 핵심은 어버이를 모시는 것이고, 義의 핵심은 형을 따르는 것이며, 智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이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禮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조절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고 한다(離婁上, 27; 조궁호, 1998).

22) 국어사전에 私란 “사사로운 일, 자기 한 몸이나 집안에 관한 일.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만을 꾀하는 일. 숨기어 비밀로 하는 일”로 정의 되어 있다(이희승, 1961).

수 있다. 이러한 조정 선택의 갈등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소와 선택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들간의 관계, 가정된 동조압력(다원적 무지현상)과 같은 요인들이 공사조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도덕교육: 사회에서 권장되는 덕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1에서는 초등학교의 초급학년에서 쓰이는 도덕교과서에 나타나는 규범, 덕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권장되는 규범의 근본 사상은 공의 영역(학교)에서나, 사의 영역(가정) 모두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 위계질서의 수용이라는 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영역이 사의 영역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질서와 관련된 규범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의 영역을 개인적인 행위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구축을 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공의 영역이 사의 영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가치영역으로 여겨지지 않고 다만 개인을 제약하는 영역으로만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공의 영역이 사의 영역과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의 사회적 갈등상황에 대한 접근이 공적조망을 취하기 보다는 사적조망을 취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을 조장할 수 있다.

공의 영역과 사의 영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화와 위계질서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규범은 교류관계의 진행과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기도 하다. 화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을 쌓게 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내집단의 화목과 성원들의 조화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다. 교류과정에서 생기는 성원간의 갈등은 당사자들이 논리를 따져 시비를 가리는 대신에, 양보를 하거나, 권위자(어른, 아버지, 선생)의 중재를 수용하는 양태로 해결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Leung, 1987). 즉, 유교문화권에서는 인간을 관계맺음 속에서 파악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떠난 독립된 개별자로서의 인간관을 지닌 개인주의 문화권과 대비되는 특징

을 지니며, 타인과의 관계는 위계적인 본질을 지닌 것으로 여긴다. 화목과 위계질서의 두 가지 덕목은 유교문화권에서는 지상덕목(moral imperatives)의 역할을 한 것이고, 이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철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의 분석결과는 학교라는 공식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관 교육은 여전히 수직적 집단주의의 특색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최근의 한 연구는 한국사회가 수평적 개인주의의 특성을 많이 띄는 변화가 진행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규석·신수진, 1999).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사회화과정(TV, 매스컴 등)에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개인주의적 평등주의적 가치관에 많은 노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나, 이러한 노출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갈등과 이의 해결과정에 대하여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의 한 연구(Kim, 1998)는 국내에서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각본을 제시하고 상식적인 도덕행위에 반하는 행위(쓰레기를 복도에 버리는 것, 습득한 돈을 갖는 것, 과자를 혼자 먹는 것)를 지시하는 교장, 교사, 반장, 친구들의 지시에 대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지시를 모두 거부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인 바 있어, 한국의 사회화과정에서 권위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아동들도 도덕적인 지시를 하는 사람에게 보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서에서는 적어도 이 같은 갈등의 국면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에 대한 연구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인간을 관계자로 보는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을 개별자로 보는 사회의 도덕관이 수입되어 기존의 유학적 도덕관을 대체해 가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연구되고 있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1981, 1984)은 근자에 들어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한 지적은 그 이론이 서구중심적 인간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그 이론이 남성 중심적, 개인주의적, 이성 중심적임을 지적하면서, 도덕성 판단의 핵심적인 요소로 공감적 사고(Hoffman, 1987), 자비와 인정(Gilligan, 1977; Haan,

1985)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Kohlberg가 인지능력의 발달을 도덕성발달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도덕성을 고도의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한 형태로 여긴데 반해서, Haan(1985)은 도덕성을 사람들간의 실제적인 생각(reasoning)의 사회 정서적인 변증법적 결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즉 도덕성발달은 사회화의 대인교류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인갈등에서 아동들은 상대방의 의도, 동기,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게되고 실제적인 사고(practical reasoning)를 하게되며,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Sloan과 Hogan(1986)도 도덕성판단이 대인관계매력과 초연하게 작용할 수 없음을 보다 강조하며, 도덕적 사고는 내재화된 주위사람과의 대화의 과정(internalized dialogues)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주장들은 도덕성 판단에 있어서 공정담론을 중심으로 인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 인정담론을 중심으로 공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학자들에게 이 이슈를 접근함에 있어서 전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정이 최소규범이고, 인정이 최대규범이라는 점에서 "인정이 넘쳐 흐르는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한, 이같은 관점의 전환은 더욱 요망되어진다²³⁾.

23) 공정한 사회가 인간관계를 경제적 교환의 관계로 변질시키는 가능성이 몇몇 연구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공사의 갈등문제를 개인이 취하는 조망의 차이로 접근한 연구들은 공정과 인정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공정을 선호하는 집단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이 자기에게 베푸는 인간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들이 타인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도 이에 대한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응분의 물질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장성수 등, 1990). 또 구본용(1991)은 한국사회에서 공정의 덕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고독감과 소외감이 크다는 것을 보고하며, 아울러 이러한 고독의 주요한 원인이 사람들의 물질 추구경향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수원, 장성수와 정진곤(1990)은 사회갈등 상황에서 농촌사람들이 인정조망을, 도회지 사람들이 공정조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였으며, 인정조망을 취하는 사람들은 분배

사회적 판단의 두 양태(mode): 연구 2에서 사람들은 공정과 인정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각본을 보고서 공정(혹은 인정)지향적 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판단을 하였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공정 지향행위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 경향은 행위자들이 사적인 관계가 아닌 역할관계에서 벌어진 상황(교통위반상황)에서는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비록 판단은 공정 지향을 선호하지만, 다른 일반사람들은 인정 지향적 행위를 많이 보일 것으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인정의 논리가 많이 통용되며, 자신들도 실제상황에서는 인정의 논리에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각 행위를 보고서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공정행위를 설명하는 경우에 개별자적 시각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교환의 관계로 보며,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며, 공적인 관계를 사적인 관계와 구별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공정담론을 전개한다. 한편, 사람들은 인정행위를 설명하는 경우에 우리라는 관계정서를 동원하여 의리를 중시하는 인정담론을 전개한다. 두 가지 담론의 제시에서 나타나는 연령차이는 중학생이 공정담론을, 대학생이 인정담론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발달상의 차이일수도 있고, 세대차이일 수도 있다. 대학생들이 제시하는 이유들이 중학생에 비해서 복합 차원적 특색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발달상의 차이로 필자는 보고자 한다.

중학생이 보이는 공정담론은 주로 준법의 내용인 법리(法理)의 논리라 볼 때, Kohlberg(1984)의 도덕성 발달단계에서 인습적 단계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한편, 인정담론은 상대방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전인습단계, 혹은 인정이라는 세속적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인습단계의 사고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법리논리

의 인정성에, 공정조망을 취하는 사람들은 분배의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인다. 보다 최근에 대만에서 이루어진 연구(Lin, 1999)도 동농의 비교에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들은 공정한 사회란 이상(理想)적인 사회(최대규범의 사회)로서가 아니라 최소규범의 사회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에서 인정담론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하는 점이 흥미롭다. Kohlberg(1984)는 개인이 도달한 단계와 차상위단계 사고와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지불균형(disequilibrium)을 경험하는 것이 차상위단계로의 진전에 필요한 심리적 조건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단계의 진전이 단선(單線)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보아,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원리들이 공존하기보다는 대체되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를 발달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 같은 단선적인 발달론은 문화비교의 연구결과(Miller, 1984; Shweder & Much, 1990 등)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1950년대에 인지혁명을 주장했던 Bruner(1986)는 인간사고의 두 가지 양태로서, 명제적 사고(propositional thinking)와 담화적 사고(narrative thinking)를 제시하고 있다. 명제적 사고는 이론적이고, 형식 논리적이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로 구성된 과학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사고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상황맥락(누가 언제 생각하느냐 따위)에 좌우되지 않는다. 반면에 담화적 사고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어, 사람들간의 관계맥락, 교류상태, 행위의 의도 등 구체적이고 상황 특수적인 사고이다. 담화적 사고는 사람과, 그들의 행위, 행위의도, 목적,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상황맥락마다 달리 나타난다. 명제적 사고의 위력은 과학에서 볼 수 있고, 담화적 사고의 위력은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다(Bruner, 1986). 최근의 한 연구(Peng & Nisbett, 1999)는 명제적 사고가 서양인에게서 발달했고, 담화적 사고는 동양인에게서 발달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두 가지 입장이 갈등을 이루는 상황에서, 변증법적 통합이 서양인에게서는 두입장의 논리성에 의해서 하나의 입장이 지배적인 통합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동양인에게서는 두 입장을 부분적으로 모두 취하는 통합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특색은 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동서양의 문화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Bruner의 구분은 Kohlberg의 이론이 명제적 사고만을 다루고, 담화적 사고를 무시했음을 지적하고 있다(Vitz, 1990). 명제적 사고는 형식논리에 의존하고 담

화적 사고는 상황논리에 의존한다. 따라서 전자는 진위가 분명하게 판가름 나지만, 후자는 어떠한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진위가 달라지는 일리성(김영민, 1996)만을 지니게 된다. 이수원(1997)은 두 가지 입장의 양극단을 파악하여 그 가운데를 취하는(允執厥中) 중용사상을 태도론적으로 분석해 내고 있다. 즉 사형제도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일차원의 양극구조(찬성-반대)로 파악하는 경우에 옳고 그름의 시비 차원에서 평가적 입장을 취하지만, 이를 이원구조(찬성차원과 반대차원)로 파악하는 경우에 사태를 서술적 입장에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서술적 차원에서는 찬성하고, 인도적 가치 구현이라는 서술적 차원에서는 반대하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어떠한 선택이 내려지는가 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맥락을 초월한 판단(항상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곧 상황논리이고, 시중(時中)의 논리이며, 생활의 논리이다. 최근까지 심리학계에서는 형식논리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상황논리를 형식논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상황논리는 형식논리의 결여태, 미성숙한 사고의 결과, 내지는 인정과 정실에 이끌린 전근대적인 비합리적 사고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공정의 담론은 명제적 사고의 특색을, 인정의 담론은 담화적 사고의 특색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두 가지는 단속적인 발달선상에서 대체되어질 것이 아니라, 병존해야 할 생활도덕의 담론들이다. 마치 명제적 사고와 담화적 사고 중 “어느 하나의 양태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풍요로움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Bruner, 1986, p. 11) 것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담론은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서로 환원될(irreducible) 수 없는 담론들이다.

참고문헌

- 고홍화 (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구분용 (1991). 고독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성. 한

- 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자, 한규석 (2000). 심정대화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22.
- 김영민 (1998). 진리, 일리, 무리--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 현실사.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대출판부.
- 김정운, 한성열 (1999).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주희 (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집문당.
- 박이문 (1998). 동양문화와 세계문화. 과학사상, 여름.
- 송하울 (1999). 부패의 경제학. 산업연구원.
- 양승두 (1980).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간), 한국의 사회와 문화, 3집.
- 이문조, 박광국, 김지수, 배병일 (1996) 부패의 현상과 진단.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 이수원 (1987).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정공간.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엄;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요인, (pp. 131-142), 서울대학교.
- 이수원 (1997). 중용의 심리학적 탐구.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논문집 동양심리학의 모색 (pp. 107-130) 서울: 한국심리학회.
- 이수원, 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10월, 서울대 교수회관. (pp. 61-80)
-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 출판부.
-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임희섭 (1980). 현대한국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간), 한국의 사회와 문화, 3집
- 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교육논총, 3권, 217-265
- 장성수, 이현남 (1989)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에 따른 도움행동의 결정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29-145.
- 조궁호 (1991).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2): 교육론과 도덕 실천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73-108.
- 조궁호 (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
- 차성환 (1992).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문화과 지성사.
- 최봉영 (1998). '사회' 개념에 전제된 개체와 전체의 관계와 유형. 동양사회사상, 1집, 79-104.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1997).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발표논문집, 131-143.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현대심리학의 이해(한국심리학회 편). 서울: 학지사.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박수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69-79.
- 최상진, 유승엽 (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논총, 제 5권 1호, 중앙대학교, 107-132.
- 최상진, 한규석 (1998a). 교류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문화와 한국인(국제한국학회 편). 서울: 사계절.
- 최상진, 한규석 (1998b).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 최석만 (1998). 사회윤리로서의 합리주의와 유교의 비교. 동양사회사상, 1, 133-160.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성열, 안창일 (1992). 집단주의의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116-128.

- 한형조 (2000). 유교는 미래에 있다. 중앙일보(간), 새천년 Emerge, 5월호, 56-69.
- Bruner, J. S.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 of the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Haan, N. (1985).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Cognitive or social disequilibrium?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96-1006.
- Higgins, A., Power, C., & Kohlberg, L. (1984). The relationship of moral atmosphere to judgement of responsibility. In W. Kurtines & J.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 74-106.) NY: Wiley.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47-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z, D. Allport, F. (1931). *Student attitudes: A report of the Syracuse University research study*. Syracuse, NY: Craftsman Press.
- Kim, J. M. (1998). Korean children's concept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and moral reas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4, 947-955.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vol. 1. Essays in moral development*. NY: Harper & Row.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vol. 2. Essays in moral development*. NY: Harper & Row.
- Leung, K. (1987). Some determinants of reactions to procedural models for conflict resolu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98-908.
- Lin, A.(1999). Qing(affection) and fa(law): Two criteria for reasonableness in judging social dilemma in Chinese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for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 4-7. Taipei.
- Miller, J. (1999). Cultural psychology: Implications for basic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Science*, 10(2), 85-91.
- Miller, J.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 & Bersoff, D. (1992). Culture and moral judge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Peng, K., & Nisbett, R.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9), 741-754.
- Sampson, E. E. (1975). On justice as equality. *Journal of Social Issue*, 31, 45-64.
- Sarbin, T. R. (1986). The narrative as a root metaphor for psychology. In T. R. Sarbin(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pp. 3-21)New York: Praeger.
- Shweder, R., & Much, N. (1991). Determinations of meaning: Discourse and moral socialization. In R. Shweder(Ed.),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pp. 186-24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Mahapatra, M., & Miller, J.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India and United States. In K.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pp. 1-8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loan, T., & Hogan, R. (1986). Moral development in adulthood: Lifestyle processes. In G. Sapp. (ed.),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rocesses, techniques, and research*. pp. 167-181.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 Smetana, J., Bridgeman, D., & Turiel. (1983).

- Differentiation of domains and prosocial development.* (pp. 163-183.) San Diego: Academic Press.
- Tajfel, H. (1978). Interindividual behavior and intergroup behavior.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Vitz, P. (1990). The use of stories in moral development: New psychological reasons for an old education method. *American Psychologist*, 45(6), 709-720.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W.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 Bacon.
- Webster's dictionary (1989). *The new lexicon Webster's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Encyclopedic edition*. New York: Lexicon Publications.

1차 원고 접수 : 2000년 3월 17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8월 19일

Social Spheres(Public & Private) of Korean Society: Conflict of Justice discourse and Relationship discourse

Gyuseog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wo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and private social spheres in Korea. In study 1,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for ethic class for the first two levels of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The books contained a number of norms which I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 norms place stro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harmony and hierarchy in both private and public relationship, indicating no clear demarc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study 2, students in two age groups(middle school and college) were provided three brief vignettes and asked to evaluate the action taken by the protagonist. Each vignette described a social situation where the actor acted for public justice or for private relationship. For a half of the students the vignettes described justice oriented action and for the other half, relationship oriented action. The respondents favored the justice discourse but the relationship discourse was also frequently appeared. The two discourses may represent two different modes of thinking which cannot be reducible to either one. Suggestions were made with regard to 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to psychologist's approach toward social discourses in Korea.